

생활 속 불편, 안전무시, 예산낭비 국민 참여로 빠르게 개선한다

- 4월 17일부터 홈페이지에 ‘행정·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’ 개설·운영
- ①생활 속 불편한 행정 서비스, ②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, ③부적절한 지방 예산 낭비 정책·사업 등 3대 분야 개선 제안 공모

-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‘행정·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’를 운영하여,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한다.
 -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 창구에 접속하면,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.
- 참여 주제는 ①생활 속 불편한 행정서비스, ②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, ③부적절한 지방 예산 낭비 정책·사업 등 3개 분야이다.
-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 예정이지만, 특히, 1차 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.
 -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「행정안전 분야 정상화 TF」에서는 이들 제안 중 집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이행을 추진한다.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많은 국민께서 행정·안전 분야에서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밝히며,
 - “행정안전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국민께서 주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‘국민 삶에 플러스’가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1401)
	기획재정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형준 (044-205-1402)



행정·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

생활 속 서비스불편, 안전무시, 예산낭비
제보 한 통으로 사라집니다!



국민이 겪는 불편을 정부가 직접 듣고 빠르게 해결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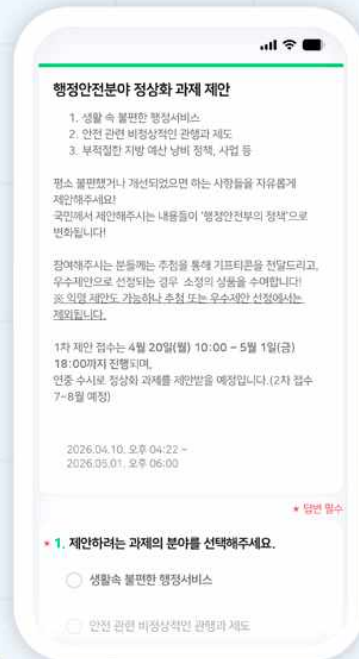
참여방법

- 1 QR코드 스캔
- 2 간단한 제안 작성
- 3 제출 완료



참여주제

- 1 생활 속 불편한 행정 서비스
- 2 안전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
- 3 부적절한 지방 예산 낭비 정책·사업



익명 가능

이름 기재없이 제안 가능,
개인정보 걱정 없이 참여



상시 운영

연중 참여 가능
(집중 접수 기간: 1차 4~5월 / 2차 7~8월)

제안 바로가기

